

대학도서관 지정도서 활용이 수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윤영*

<목 차>

- | | |
|-----------------|----------------|
| 1. 서 론 | 4. 자료의 분석 및 논의 |
| 2. 선행연구의 개관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 Abstract |

1.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의 대학교육은 지식과 정보가 날로 폭증하는 미래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하는 자주학습 능력을 습득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수—학습에 있어서 특히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학습능력을 터득하도록 하는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하는 교수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대학교육에서 유의해야 할 점인 “무엇을 아는 것(Know-What) 못지 않게 어떻게 알아야(Know-How)하며 어디서 알 수 있는가(Know-Where)를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실현할 수 있는 교수방법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바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이용한 과제학습 활동은 강의 내용의 이해뿐만 아니라 자주 학습의 효과를 높여줌으로써 학생의 독자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험대학 실시 이후 대개는 수업계획서(Syllabus)에 이러한 교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그 시행이 지지부진한 설정이다. 그것은 바로 이 교수

* 명지대학교 교수

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 장치에만 급급한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련연구를 살펴볼 때,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라기 보다는 거의가 지정도서제도의 운영문제 및 실태조사이거나, 또는 과제 학습방법론에 국한된 것뿐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에 있어서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교수변인(教授變因)으로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했을 때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별로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차후 이 연구 결과가 메타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학습효과의 크기”를 정리하는데 기초자료로서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1. 2 연구의 목적

대학에서 가장 빈번히 그리고 대부분의 수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강의식 교수법이다. 이 강의식 교수방법은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 정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학교육에 있어서 오랫동안 인기를 누려온 방법이다. 이 점에서 대학에서의 교수방법으로는 계속 그러한 가치를 인정 받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의 반응을 주고 반을 기회가 제약되며, 피드백의 기회가 적어서 학생측에 수동적인 역할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결함도 있다. 이러한 결함을 보충, 보완하기 위한 교수변인으로서 도서관의 자료활용을 통한 과제학습방법을 강의식 교수방법에 도입했을 때 학생들의 자주학습 능력이 신장되고 학습 효과도 더 커지는 가를 알아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강의식 교수방법에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도입했을 때, 이 강의를 받은 학생들이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보다 첫째, 학업성적이 더 우수한지를 알아보고, 둘째, 도서관자료를 더 많이 잘 이용하고, 학습을 더 많이 충실히 하는지를 알아보고, 셋째, 이러한 수업방식에 더 만족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다.

2. 선행연구의 개관

2. 1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수업방법의 측면에서 도서관의 지정도서 활용의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고, 주로 도서관봉사 제도의 측면에서 연구된 논문이 몇 편 있을 뿐이다. 그 중에서 이 연구의 취지에 간접적이나마 연관이 있는 선행연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노정식, 김정소의 연구¹⁾는 이 제도의 의의, 역사, 운영방법,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필요하게 된 근본 원인은 고등 교육의 질 향상의 차원에서 교수방법 개선에 기인하며,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교수의 이해와 열의가 성패의 관건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자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오로지 문헌연구에 의존했으므로 후속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홍향희의 연구²⁾는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정도서 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실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지정도서 활용 상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있어서 지정도서 제도가 바람직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 중요 원인으로서 전통적 방법을 탈피하지 못한 주입식 교육방법과 대학당국의 이해 부족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 필요성이 도서관의 지정도서 제도의 운영상 문제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성수의 연구³⁾는 지정도서 제도에 관한 문헌과 외국 제도의 현황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지정도서 제도와 실태를 비교검토하여 우리 실

1) 蘆頤埴, 金正昭, “大學圖書館의 指定圖書制度에 關한 研究,” 大邱敎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9(1973) : 189~202.

2) 洪香姬, 大學圖書館 指定圖書制度에 關한 研究(미간행 석사학위논문),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76.

3) 高聖秀, “指定圖書制度에 關한 研究,” 圖書館學論集 4(1977) : 1~38.

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면의 개선 방안으로서 독립된 지정도서실의 설치 및 전담사서 배치, 지정도서 제도의 단계적 확충 및 이용실태 평가실시.

둘째, 내용면의 개선 방안으로서 지정도서의 합리적인 선정과 비치, 구입비의 확보 및 수업진행 과정과 지정도서 봉사 수행의 연결성,

셋째, 협력체제 확립의 개선 방안으로서 대학당국과 도서관 상호협력 및 교수와 사서와의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이 연구는 국립대학교 도서관 6개관, 사립대학교 도서관 6개관에 한한 운영실태 조사의 분석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채용한 교수의 수업실태에 관한 조사연구가 없어 그 효과성에 관한 입증을 발견할 수 없다.

최달현, 손정표, 고성수의 「실험대학 과제도서실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⁴⁾는 앞서의 선행 연구들이 대체로 이론적 내지 부분적인 실태조사에 한정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험대학 중 지정도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질문지와 현지조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찰하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및 교수들의 협력관계에 대한 의견들을 분석하여 도서관 조직의 구조적인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영방법의 모색과 운영상에 나타나고 있는 의적 구성요소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상 지정도서의 ① 지정방법 ② 복본량 ③ 배가법과 열람제도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정도서 제도란 도서관측이 주어진 목적달성을 필요에 의하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라, 교수들이 교수방법상 필요에 따라 도서관에 요청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로, 곧 교수방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지정도서 공급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도서관에 있다 하더라도 지정으로부터 활용 및 성과에 이르기까지 그 성패의 관건은 교수에게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조사에 있어서는 시간의 제한 및 비용 때문에 지정도서 제도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및 의견에 관해 적접적인

4) 崔達鉉, 孫正彪, 高聖秀, “實驗大學 課題圖書室 運營에 관한 調查研究,” 圖書館學論集 5(1978) : 119~168.

조사는 하지 못하고, 그 대신 사서와의 면담 및 질문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교수와 학생들의 인식 정도가 대단히 낮다는 것이었다.

김명옥의 연구⁵⁾는 문헌분석과 질문지를 사용하여,

- (1) 1970년대의 정부 및 학교당국의 교육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은 어떻게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가?
- (2) 도서관의 지정도서 봉사의 정확한 정의는 어떤 것인가?
- (3) 도서관의 지정도서 봉사를 위한 정부당국의 역할과 의무는 어떠해야 하는가?
- (4) 대학도서관에서 지정도서 봉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5) 교수 및 학생들의 지정도서 봉사에 관한 견해는 어떠한가에 대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정도서 봉사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교수는 강의 위주의 교수방법을 지양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도서관 자료 활용 또는 실험실습을 통해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수방법을 채용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교수방법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지정도서 봉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의 지정도서 봉사는 교수—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업지원이며 가장 능동적인 도서관 봉사활동이라는 것이다.

셋째, 실험대학 운영에서 교수방법 개선책에 따라 지정도서 봉사를 하도록 한 것을 전체적인 제도면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도서관의 지정도서 봉사체제는 대학당국의 교육정책, 교수의 강의 방식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인식정도에 따라 활발히 운영되기도 하고 저조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봉사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교수들이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도서관의 지정도서 봉사는 교수들에게는 강의의 이해도를 높일 수

5) 김명옥,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지정도서 봉사에 관한 일 고찰,” 圖書館學會誌(延世大學校圖書館學會) 4(1979) : 217~254.

있는 잇점이 있고 수업의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단위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며 자습을 통한 면학분위기를 조성시켜 주며 강의의 개요 및 방향과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잇점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수와 학생들의 지정도서 봉사에 대한 견해는 실제조사에 의하지 않고 문헌조사에만 의존하였다.

문교부 대학운영 종합평가위원회의 「실험대학 연구보고서」에서 밝힌 지정도서 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① 제도의 채용 ② 제도의 실시 ③ 실태조사에 의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1973 학년도부터 1980 학년도까지 실험적으로 실시하던 고등교육개혁사업을 실험에 참가한 43개교에서 1981 학년도부터는 전국의 대학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전국의 대학이 교수방법 개선에 따른 졸업학점의 인하를 비롯해서 각종 개혁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교수방법의 개선, 즉 교수방법 개선을 위한 여건조성 7개항 중 첫째가 도서관의 지정도서 활용임을 제시하고 있다.⁶⁾ 그 중에서 특히 안창일, 이용선, 박재윤의 「효과적인 교수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⁷⁾ 는 실태조사가 아닌 실험연구로서 주목할만 하다. 이 연구는 실험대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교수방법으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과제중심 학습방법에 대한 실험이다. 1978 학년도 제2학기에 설강되어 있는 과목 중 3인의 연구자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 중 이 실험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복지행정, 형법각론 및 사회심리학의 3개 교과목을 선정하였다. 이 세 교과목에 각각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실험의 취지를 설명한 후 희망자에 한하여 실험집단을 구성하였다. 대상 학생의 수는 복지행정(실험집단 36명, 비교집단 47명), 형법각론(실험집단 10명, 비교집단 60명), 사회심리학(실험집단 20명, 비교집단 142명)을 수강한 총 315명이었다. 실험에 사용된

6)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 高等教育改革事業中 1次事業 : 實驗大學研究報告書, 1973 學年度, 서울 : 文教部, 1974. p.183.

7) 安昌一, 李容善, 朴在允, “效果的인 교수 및 평가방법에 關한 研究,” 高等教育改革事業中 實驗大學研究報告書, 1978 學年度, 서울 :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 1979. pp.183~205.

교수방법은 지정도서를 활용한 방법으로 복지행정을 수강하는 실험집단에게는 8주간 개별적인 과제학습을, 형법각론을 수강하는 실험집단에게는 8주간 세미나식 강의를, 그리고 사회심리학을 수강하는 실험집단에게는 한 학기 동안 개별 강의방법을 사용했고,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주 3시간씩 강의위주의 교수방법만을 사용하였다. 실험의 결과 지정도서를 활용한 과제중심의 강의방법은 강의위주의 교수방법보다 3개 교과목 모두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즉 종합평가의 결과를 보면, 복지행정은 평균 18점 이상 형법각론은 평균 8점, 사회심리학은 평균 9점씩 비교집단의 학생들보다 각각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질문지에 대한 응답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과서 이외의 지정도서 및 기타 자료를 많이 읽게 되고, 또 자신의 공부 결과에 대해 강의만 듣고 공부하여 시험을 치른 학생들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보이며, 아울러 학습에 자신감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곧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은 단지 강의위주의 교수방법보다 학생들의 학습 및 태도면에서 모두 효과가 큰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실험의 취지를 사전에 주지시킴으로써 선입관을 갖게 하였고,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집단간의 수강생의 학년 및 수가 일정치 않았고, 두 집단간의 평균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각 교과목의 교수방법 전개에 있어서 통일이 없었고, 실험기간도 한 학기 또는 중간고사 이후 8주간 등으로 일정치 않거나 너무 단기간으로 인해 실험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비교분석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내 유일의 실험연구로서 학습 효과의 크기를 구명하고자 한데 의의가 있으며 본격적인 이런 연구의 계기를 제공한데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김재철의 「지정도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관 이용증대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⁸⁾는 지정도서 이용증대 방안을 찾고자, 부산·경남지역의 37개 대학도서관의 지정도서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정도서실을 이용하고 있는 부산

8) 金才哲, “指定圖書室 運營에 따른 開書館利用 增大方案에 관한 調査研究,” 釜山女子專門大學論文集 3(1982) : 151~164.

여자전문대학생 30명을 임의 추출하여 6개 항목으로 된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대학교육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강의실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둘째, 도서관의 지정도서 활용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도 교과서, 참고도서, 과제학습도서 등으로 혼돈함에 따라 그 실효성이 거의 없음이 밝혀졌다. 셋째, 도서관의 지정도서 제도가 교수방법 및 설강 과목수 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도서관의 한 봉사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도서관의 지정도서 이용증대를 위해서는 ① 교과서중심주의, 교수중심주의를 지양하고 과제중심주의, 학생중심주의 수업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② 도서관의 지정도서 읽기는 수업의 일부로서 필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2 다른 나라에서의 연구

이시카와(石川清治)의 연구⁹⁾는 류큐대학(琉球大學)에서의 교수방법과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교수 62명과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교수들의 교수방법 및 수업진행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내프(Patricia B. Knapp)의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직접 면접을 하였으며, 학생들에게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1차 「도서관이용 및 독서에 대한 조사」와 2차 「도서관자료의 대출 동기 및 이용목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수가 교과서 위주로 강의를 하였을 때 학생들이 도서관자료를 빌려 읽은 것은 교양서가 54.6%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은 오락서가 37.5%, 전공서는 0.96%순으로 아주 낮았다.

(2) 교수가 수업계획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을 때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9) 石川清治, “學生の圖書館利用學習：教授形態との關連において,” 圖書館界 17 : 2(1965, 8) : 34~35.

(3) 교수가 수업계획서를 통해 도서관의 지정도서 봉사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하였을 때 학생들의 64%가 강의준비를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학생들이 빌려 읽은 도서관자료도 46.2%가 강의준비를 위해서, 35.1%가 교양을 위해서, 18.4%가 오락을 위해서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4) 조사대상 62 명의 교수 중 교과서 중심의 강의위주 수업을 진행시킨 교수는 42 명으로 67.7%였고,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한 교수는 20 명으로 32.3% 이었으며, 이중 75%에 해당하는 15 명의 교수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다고 하였으며 25%에 해당하는 5 명의 교수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내프(Patricia B. Knapp)가 몬티스대학도서관에서 행한 실험(The Montieth College Library Experiment)연구¹⁰⁾는 몬티스대학 도서관의 지정도서 봉사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이 실험연구는 교수가 전공과목 수업에서 과제를 부여하고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하여 교과학습을 착실히 시켰을 때, 학생들이 그들의 교과학습에 도서관자료 이용의 필요성 및 그 이용 능력이 신장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실험전 학기와 실험 학기간의 학생들의 이용실태에 관한 기록조사와 질문지 응답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수들이 여전히 교수 중심적인 강의위주의 교수방법을 선호함으로써 몬티스 프로젝트가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밝히는데는 미흡했으나,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하는 교수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기저는 제공하였다. 즉 이 실험연구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도서관자료를 활용한 과제학습과 교수의 강의를 통합한 교수방법의 필요성을 입증한 중요한 연구이었다.

얼햄대학(Earlham College) 의과대학도서관 사서인 커크(Thomas Kirk)가 얼햄대학에서 행한 연구(Earlham College Program)¹¹⁾는 몬티스대학에서 행한 연구(Montieth College Library Project)와 같은 조사연구로서, 내프의

10) Patricia B. Knapp, *The Montieth College Library Experiment*,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66.

11) Thomas Kirk, "Course-Related Library Instruction in the 70's," in *Library Instruction in the Seventies: State of the Art* ed. by Hannelore B. Rader, Ann Arbor, Mich: Pierian Press, 1977.

연구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강한 것이다. 이 연구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업방법으로서 도서관자료 이용을 중심으로 한 자주학습을 통한 수업방법의 우위성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곧 이 연구는 1930년대 존슨(Lamar Johnson)이나 쇼스(Louis Shores)가 역설한 바를 실증하고자 시도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도서관의 지정도서 활용의 교수방법의 성공은 교수와 사서가 수업 진행에 있어서 항상 파트너로서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특히 지정도서실 담당사서는 연구교수 자격으로서 지원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나타난 사실은 교수가 교과서 중심의 강의방법에서 도서관자료 활용중심의 교수방법으로 개선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도서 활용의 교수방법 실시의 성공은 교수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골든(Bruce Gregory Golden)은 그의 박사학위 청구논문¹²⁾에서 교수가 수업을 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도서관자료 및 매체자료를 이용도록 한 것과 그 교수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간에는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조사연구에 응낙해 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임교수 38명 중 충실향응답을 해준 29명과 이들 교수에게서 강의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IDEA 시스템(The Instructional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System)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업을 위해서 도서관자료를 이용도록 한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평점은 그렇게 하지 않은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평점보다 의미있게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그 가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29명의 교수가 응답한 결과는 10명의 교수가 도서관자료를 수업에 이용도록 하였으며 19명의 교수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그룹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에 있어 유의(有意)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一元

12) Bruce Gregory Golden,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ected Community College Instructors' Utilization of Learning Resources Materials and Student Ratings of Teaching Effectiveness*(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he Graduate Library School of Indiana University, 1981.

變量分析)을 한 결과, $F=2.62$, $P<.12$ 이었다. 따라서 $P<.05$ 수준에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수업을 위해서 매체자료를 이용토록 한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평점은 그렇게 하지 않은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평점보다 의미있게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F=1.14$, $P<.30$ 으로 이 두 그룹간의 차이 또한 $P<.05$ 수준에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이런 결과 중에서도 주목할만한 사실은 학생들로 부터 4점 혹은 5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 교수의 대부분은 도서관자료나 매체자료를 활용한 교수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수업을 위해서 도서관자료를 이용토록 한 10명의(평균평점 3.7) 교수 중 7명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렇게 하지 않은 19명의(평균평점 3.11) 교수 중 4명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곧 높은 점수를 받은 11명의 교수 중, 64%에 해당하는 7명의 교수가 도서관자료를 교수—학습에 활용시킨 교수이었다. 그리고 수업을 위해서 매체자료를 이용토록 한 21명의(평균평점 3.43) 교수 중 10명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렇게 하지 않은 8명의 교수 중 높은 점수를 받은 교수는 유일하게 1명뿐이었다. 곧 높은 점수를 받은 11명의 교수 중 91%에 해당하는 10명의 교수가 매체자료를 교수—학습에 활용시킨 교수이었다.

(4) 교수의 지정도서 ① 선정계획 ② 이용방법 ③ 이용범위 ④ 이용의 다양성 및 ⑤ 과제보고서 평가 등과 이들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평점간에는 적극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에서는 상관관계가 대단히 약한 것으로 밝혀져, 통계상으로 의미가 없었다. 이 조사연구에 있어서 학생에 의한 평가란 심리검사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적용할 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타당성의 정의가 때로는 서로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문제가 있기는 하나, 수업을 위해 도서관의 자료를 학생들로 하여금 이용토록 한 교수들 중 도서관의 지정도서 이용의 필요성과 자료 소개를 명확히 하고, 학습해야 할 점을 정연하게 설명해 준 교수가 그렇지 않은 교수보다 높은 평점을 받았다는 사실은 과학적인 후속 연구를 자극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필자가 1986 학년도 2학기에 예비연구로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하여 한 학기동안 강의한 학급을 실험집단(44명)으로 하고,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고 강의한 그 전학년도(1985)의 학급을 통제집단(39명)으로 하여 성적을 종속변인으로 택하여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M=78.23$, $SD=12.83$)과 통제집단($M=68.10$, $SD=15.72$)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81)=3.23$, $P<.01$). 그래서 이 예비연구는 하나의 선도실험연구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가설 정립을 위한 탐색적 조사로서 충분하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착실한 연구설계에 따라 표본의 신뢰도를 높여 본 실험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3.1 가 설

본 연구의 기본적 가설은 대학교육에 있어서 교수방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수가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양식에 적합한 학습과제를 지정하고 도서관이 이를 위한 자료봉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학생들의 수업 준비가 충실히질 것이고 동시에 학습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¹³⁾

따라서 이 연구의 기본적 가설을 검증 가능한 형식으로 구체화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더 높을 것이다.

(2)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보다 도서관 이용 및 학습활동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

13) 卞榮啓, 授業設計, 改訂增補版, 서울 : 培英社, 1980. p.50.

이다.

- (가) 도서관 및 자료이용을 더 많이 할 것이다.
- (나) 도서관자료 검색에 더 익숙할 것이다.
- (다) 과제학습 및 보고서 작성을 스스로 더 충실히 할 것이다.

(3)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보다 수강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3. 2 연구계획 및 연구대상의 선정

(1) 연구계획

- 1) 연구집단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성한다.
- 2) 실험집단에게는 수업계획서를 배포. 설명하고, 그리고 도서관의 지정도서실에 비치한 자료를 활용하여 한 학기동안 교수하고, 통제집단에게는 수업계획서를 배포, 설명만 하고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으로 한 학기동안 강의한 후 두 집단의 종합성적을 비교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 3) 구체적인 실험과정은 교과목의 성질과 교수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방식대로 하되,¹⁴⁾ 같은 교과목을 배우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똑같이 적용토록 한다.
- 4) 질문지를 사용하여 보충자료를 얻는다.

(2) 연구대상의 선정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선정

본 연구를 위해 명지대학교 재학생 중 연구대상(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실험집단 : (1988 학년도 2 학기 수강생)

「비교정치론」을 수강하는 정치외교학과 2 학년생 전원.

「영문학사」를 수강하는 영어영문학과 2 학년생 전원.

14) 『비교정치론』 강좌는 강의와 병행한 “지정도서 읽기”의 개인별 및 그룹별 구두보고와 토론, 그리고 과제보고서 제출 4회.
「영문학사」 강좌는 강의와 병행한 “지정도서 읽기”의 그룹별 발표와 과제보고서 제출 3회.

통제집단 : (1987 학년도 2 학기 수강생)

「비교정치론」을 수강하는 정치외교학과 2 학년생 전원.

「영문학사」를 수강하는 영어영문학과 2 학년생 전원.

그리고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실험집단 또는 통제집단이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실험과정에 참여시켰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2) 실험기간 및 조사기간 : 1987년 9월 1일 ~ 1987년 12월 21일.

1988년 9월 1일 ~ 1988년 12월 21일.

3. 3 연구집단의 배경 및 통제요인

(1) 연구집단의 배경

1) 대학 입학성적의 학력고사 수준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는 ±10 점 이내이며, 같은 전공을 선택하였으므로 두 집단은 지능면과 흥미면에서 동일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같은 학과 같은 학년으로서 같은 교수에 의해 수업을 받으므로 두 집단은 성격상 동일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통제요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학습지도 평가방법 등에 있어서 동일성을 기하기 위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가설 검증을 위한 기준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일 학과 학생으로 하였다.

2) 각 계열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성취동기가 동일하게 요구되는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였다.

3) 두 집단의 주단위 수업 시간수는 3 시간으로 하고 학습진도 계획을 동일하게 하여 한 학기동안 수업하도록 하였다.

4) 두 집단에 대하여 같은 교수가 같은 교과목을 강의하도록 하였다.

5) 학습평가를 위해 두 집단에 실시되는 제반사항은 동일하게 하였다. 즉 통제집단에 실시한대로 실험집단에게도 시험범위를 같게, 같은 문제 또는 같은 수준의 문제 출제, 같은 문항수, 같은 출제방식, 같은 회수가 되도록 부

탁하였다.

3. 4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1) 수업계획서를 배포, 설명하고, 계획서에 제시된대로 수업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2) 지정도서 비치와 그 내용

「비교정치론」 교과목의 지정도서 5종 각 4부

「영문학사」 교과목의 지정도서 6종 각 9부씩을 도서관의 지정도서실에 비치하고 실내열람, 밤새대출, 주말대출을 하도록 하였다.

3. 5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및 자료처리방법

(1)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본 실험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동일하게 중간, 기말시험을 과하고, 이를 절대평가 방법에 따라 종합성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도구가 없어 두 집단에게 사용한 질문지의 설문 항목들은 실험대학운영 중 실시된 질문지와 IDEA 시스템의 평가양식 중에서 관련사항만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설문 속의 5개 차원이 연속선상에서 등간성(等間性)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자료처리방법

1) 연구대상의 표본으로 선정된 2개학과 학생 중 본 연구의 취지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운동선수 4명(영어영문학과의 실험집단 2명과 통제집단 2명)을 제외한 <표 1>의 총 230명(실험집단 119명과 통제집단 111명)의 한 학기동안 성적표¹⁵⁾와 질문지 조사에 대한 응답지¹⁶⁾를 ① 학업성적 ② 도서관이용 및 학습활동 ③ 수강 만족도 등으로 나누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15) 경기(중간, 기말)시험에 의한 필기시험 결과를 절대평가한 것임.

16) 각 학기의 기말시험 시간에 일제 배포하여 전부 회수한 것임.

〈표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례수

집		단	사례 수
실 험 집 단	정 치 외 교 학 과	34	
	영 어 영 문 학 과	85	
계		119	
통 제 집 단	정 치 외 교 학 과	31	
	영 어 영 문 학 과	80	
계		111	
합		계	230

2) 분석방법으로는 SPSS/PC+(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Personal Computer)에 의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有意)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고, 4개의 하위집단(전공에 따라서 실험집단 2개집단과 통제집단 2개집단)은 일원변량분석(一元變量分析)을 한다. 일원변량분석 결과 주효과(main effect)가 있는 경우에는 셰페(Henry Scheffé)의 절차에 의해 중다비교(multiple comparison)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그리고 도서관자료의 검색 경향에 있어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χ^2 분석한다.

3) 교과목담당 교수의 수업진행 사항에 대한 면담조사 사항은 참고로 한다.

3. 6 연구의 제한점

- (1)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있어서 연구대상 학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학기분위기, 학급분위기 및 교수의 열의에 따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 (2) 연구대상으로 전체 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삼지 못하고 대학에 설강되어 있는 여러 교과목 중 2개 교과목(비교정치론, 영문학사), 여러 학과 중 2개 학과 학생으로 한정하여 선정하였으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대상에 확대 해석할 때에는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4. 자료의 분석 및 논의

실험집단에게는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하여 한 학기동안 수업을 하고, 통제집단에게는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에 의해 한 학기동안 수업을 한 후, 그 결과로 얻어진 성적과 질문지에 대한 응답자료를 ① 학업성적의 성취정도, ② 도서관이용 및 학습활동의 정도, 그리고 ③ 수강만족의 정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지정도서 활용이 학업성취에 미친 영향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1)의 검증을 위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실험집단 : $M=64.26$, $SD=13.59$)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통제집단 : $M=53.83$, $SD=9.55$)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8)=6.69$, $P<.01$). 따라서 가설(1)에서 언급했던대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경우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았다(부록 1 참조)

그래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과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이 전공에 따라서 미치는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적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집 Grp 단	사 례 N	평 균 M	표 준 편 차 SD
실 험 집 단	119	64.26	13.59
통 제 집 단	111	53.83	9.55
합 계	230	59.23	12.90

해서 자료를 4개의 하위집단(전공에 따라서 실험집단 2개집단과 통제집단 2개집단)으로 나누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실험집단 2개학과 및 통제집단 2개학과의 성적에 대한 변량분석

변 산 원 Source	자 유 도 D F	자 승 화 S S	평균자승화 M S	F F 값	유의도수준 P
집 단 간	3	9,095.55	3,031.85	23.64	.00
집 단 내	226	28,984.69	128.25		
합 계	229	38,080.24			

변량분석한 결과 주효과가 나타났으므로($F(3, 226)=23.64, P<.01$), 세 평의 사후검증 절차에 의해서 전공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외교학과의 실험집단($M=70.97, SD=10.25$)과 통제집단($M=57.87, SD=9.91$)간에, 그리고 영어영문학과의 실험집단($M=61.58, SD=13.88$)과 통제집단($M=52.26, SD=8.99$)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실험집단 2개학과 및 통제집단 2개학과의 성적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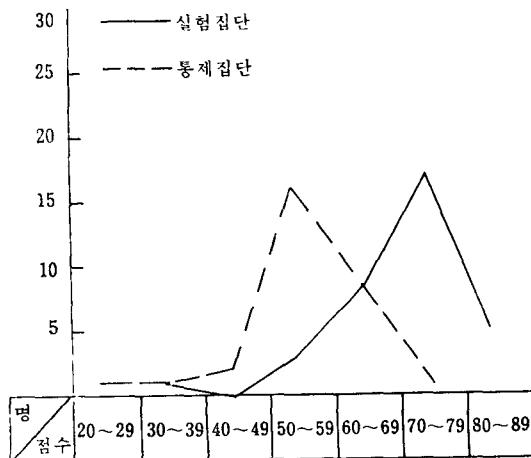
집 단 Grp	사 례 수 N	평 균 M	표 준 편 차 SD
실험 집 단	정 치 외 교 학 과	34	70.97
	영 어 영 문 학 과	85	61.58
통 제 집 단	정 치 외 교 학 과	31	57.87
	영 어 영 문 학 과	80	52.26
합 계	230	59.23	12.90

또 「비교정치론」을 수강한 두 집단의 점수분포 <표 5>와 「영문학사」를 수강한 두 집단의 점수분포 <표 6>을 그린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아도 실험집단의 성적이 통제집단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표 5〉 비교정치론을 수강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점수분포

집단 \ 점수분포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집단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실험집단 34 (100)	0 (0)	1 (2.9)	0 (0)	3 (8.8)	8 (23.5)	17 (50.0)	5 (14.7)
통제집단 31 (100)	1 (3.2)	1 (3.2)	2 (6.5)	16 (51.6)	9 (29.0)	2 (6.5)	0 (0)

() 안 수자는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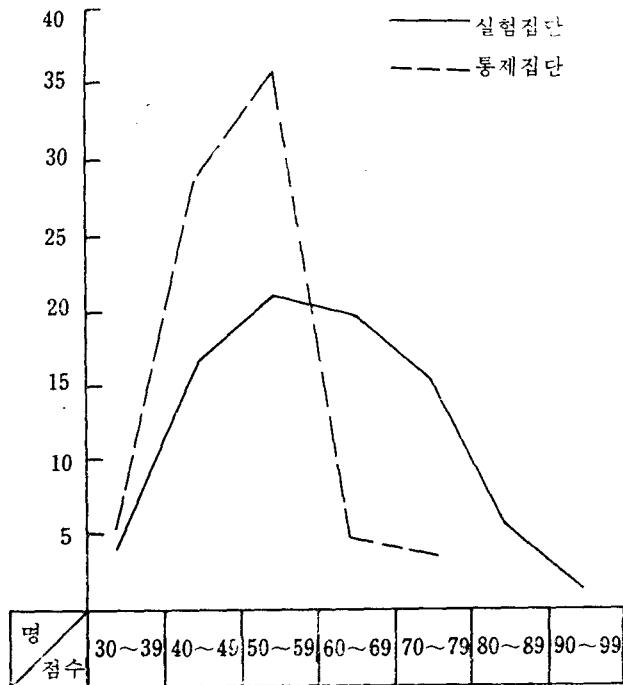


〈그림 1〉 「비교정치론」 교과목의 성적도표

〈표 6〉 영문학사를 수강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점수분포

집단 \ 점수분포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집단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실험집단 85 (100)	4 (4.7)	16 (18.8)	21 (24.7)	20 (23.5)	16 (18.8)	6 (7.1)	2 (2.4)
통제집단 80 (100)	6 (7.5)	29 (36.3)	36 (45.0)	5 (6.3)	4 (5.0)	0 (0)	0 (0)

() 안 수자는 백분율



〈그림 2〉 「영문학사」 교과목의 성적도표

따라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공에 따른 차이 검증에서도 정치외교학과의 「비교정치론」을, 영어영문학과의 「영문학사」를 수강한 두 집단간에서도 가설이 확인되었다.

4.2 지정도서 활용이 도서관이용 및 학습활동에 미친 영향

도서관이용 및 학습활동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

은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보다도 도서관이용 및 자료이용을 더 많이 할 것이다.”라는 가설(2-가)의 검증을 위해서 두 집단의 응답지〈부록 2의 1~4 항목〉을 분석한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M=11.79$, $SD=3.24$)과 통제집단($M=8.20$, $SD=2.87$)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8)=8.87$, $P<.01$).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도서관이용도 및 자료이용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집 Grp	단 N	평 M	표 준 편 차 SD
실 험 집 단	119	11.79	3.24
통 제 집 단	111	8.20	2.87
합 계	230	10.06	3.55

따라서 가설(2-가)에서 언급했던대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한 경우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을 실시한 경우에 비하여 도서관과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그래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과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이 전공에 따라서 미치는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를 4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실험집단 2개학과 및 통제집단 2개학과의 도서관이용도 및 자료이용도에 대한 변량분석

변 산 원 Source	자 유 도 DF	자 승 화 SS	평 균 자 승 화 MS	F F 값	유 의 도 수 준 P
집 단 간	3	830.07	276.69	30.38	.00
집 단 내	226	2,058.20	9.11		
합 계	229	2,888.27			

변량분석한 결과 주효과가 나타났으므로($F(3, 226)=30.38$, $P<.01$), 세페의 사후검증 절차에 의해서 전공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외교학과의 실험집단($M=13.12$, $SD=2.98$)과 통제집단($M=8.55$, $SD=3.06$), 그리고 영어영문학과의 실험집단($M=11.26$, $SD=3.20$)과 통제집단($M=8.06$, $SD=2.80$)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표 9〉 실험집단 2개학과 및 통제집단 2개학과의 도서관이용도 및 자료이용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집 Grp		사 례 N	평 균 M	표 준 편 차 SD
실험 집 단	정 치 외 교 학 과	34	13.12	2.98
	영 어 영 문 학 과	85	11.26	3.20
통 제 집 단	정 치 외 교 학 과	31	8.55	3.06
	영 어 영 문 학 과	80	8.06	2.80
합 계		230	10.06	3.55

따라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에 전공과 상관없이 도서관 및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곧 가설(2—가)은 확인되었다.

둘째,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보다 도서관자료 검색에 더 익숙할 것이다.”라는 가설(2—나)의 검증을 위해서 두 집단간의 응답지〈부록 2의 5~6 항목〉을 분석한 결과,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M=9.92$, $SD=2.68$)과 통제집단($M=7.21$, $SD=2.07$)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8)=8.55$, $P<.01$).

〈표 10〉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도서관자료 검색의 익숙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집 Grp		사 례 N	평 균 M	표 준 편 차 SD
실험집단		119	9.92	2.68
통제집단		111	7.21	2.07
합 계		230	8.61	2.75

따라서 가설(2-나)에서 언급했던대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한 경우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을 실시한 경우에 비하여 도서관 자료검색에 있어서 더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과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이 전공에 따라서 미치는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를 4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실험집단 2개학과 및 통제집단 2개학과의 도서관자료 검색의 익숙도에 대한 변량분석

변 산 원 Source	자 유 도 D F	자 승 화 S S	평균자승화 M S	F 값 F	유의도수준 P
집 단 간	3	434.03	144.68	25.10	.00
집 단 내	226	1,302.76	5.76		
합 계	229	1,736.79			

변량분석한 결과 주효과가 나타났으므로 ($F(3, 226) = 25.10, P < .01$), 세 폐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외교학과의 실험집단 ($M=10.41, SD=2.98$)과 통제집단 ($M=7.35, SD=2.03$), 그리고 영어영문학과의 실험집단 ($M=9.72, SD=2.54$)과 통제집단 ($M=7.15, SD=2.09$)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표 12> 실험집단 2개학과 및 통제집단 2개학과의 도서관자료 검색의 익숙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집 단 Grp	사 례 수 N	평 균 M	표 준 편 차 SD
실험 집 단 정 치 외 교 학 과	34	10.41	2.98
집 단 영 어 영 문 학 과	85	9.72	2.54
통 제 집 단 정 치 외 교 학 과	31	7.35	2.03
집 단 영 어 영 문 학 과	80	7.15	2.09
합 계	230	8.61	2.75

따라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에 전공과 상관없이 도서관자료 검색에 있어서 더 익숙한 것으로 밝혀졌다. 곧 가설(2-나)은 확인되었다.

또 한편,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 찾아보는 방법에 있어서, 그 빈도를 조사한 결과 두 집단이 찾아본 순서는 ① 도서관목록 조사 ② 사서에게 문의 ③ 직접 서가에서 찾아본 것으로 다같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이런 경향에서도 이용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한 결과, 도서관목록을 조사한 경우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chi^2(3)=18.18$, $P<.01$), 사서에게 직접 문의한 경우에 있어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4)=18.50$, $P<.01$). 그리고 직접 서가에서 찾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4)=72.57$, $P<.01$). 따라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자료의 검색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목록의 이용경향에 있어서는 빈도조사 결과 두 집단이 다같이 ① 저자 ② 서명 ③ 주제 기입 순서로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이런 경향에서도 이용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한 결과, 저자기입($\chi^2(4)=7.38$, N.S.)과 서명기입($\chi^2(3)=0.26$, N.S.)으로 찾아본 경우에 있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주제기입($\chi^2(4)=17.62$, $P<.01$)으로 찾아본 경우에 있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도서관목록을 이용하여 자료를 찾을 때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주제기입을 더 많이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는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보다 과제학습 및 보고서 작성률 스스로 더 충실히 할 것이다.”라는 가설(2-다)의

검증을 위해서 두 집단의 응답지 〈부록 2의 7~8 항목〉을 분석한 결과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M=23.22$, $SD=3.32$)과 통제집단($M=18.91$, $SD=3.64$)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76)=8.03$, $P<.01$).

〈표 1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과제학습 및 보고서 작성의 충실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집 Grp	단 N	사 례 수 M	평 균 표 준 편 차 SD
실험집단	114	23.22	3.32
통제집단	64	18.91	3.64
합계	178	21.67	4.01

따라서 가설(2-다)에서 언급했던대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한 경우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을 실시한 경우에 비하여 학생들이 과제학습 및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스스로 더 충실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과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이 전공에 따라서 미치는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를 4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실험집단 2개학과 및 통제집단 2개학과의 과제학습 및 보고서 작성의 충실도에 대한 변량분석

변 Source	산 원 D F	자 유 도 S S	자 승 화 MS	평 균 자 승 화 MS	F F 값	유 의 도 수 준 P
집단간	3	786.90	262.30	22.21		.00
집단내	174	2,054.54	11.81			
합계	177	2,841.44				

변량분석 결과 주효과가 나타났으므로($F(3, 174)=22.21$, $P<.01$), 세페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외교학과의 실험집단($M=23.76$, $SD=3.34$)과 통제집단($M=18.08$, $SD=3.63$), 그리고 영

어영문학과의 실험집단($M=22.99$, $SD=3.30$)과 통제집단($M=19.10$, $SD=3.65$)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표 15〉 실험집단 2개학과 및 통제집단 2개학과의 과제학습 및 보고서 작성의 충실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집 Grp	단	사례 N	평균 M	표준편차 SD
실험 집단	정치외교학과 영어영문학과	34 80	23.76 22.99	3.34 3.30
통제 집단	정치외교학과 영어영문학과	12 52	18.08 19.10	3.63 3.65
합	계	178	21.67	4.01

그러므로 역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에 전공과 상관없이 과제수행에 있어서 스스로 더 충실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가설(2—다)은 확인되었다.

가설(가), (나)의 경우와 비교하여 가설(다)의 경우 자유도가 적은 이유는 무응답이 많기 때문이다. 무응답의 수는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전체 119명 중 5명이고, 통제집단의 경우는 전체 111명 중 49명이다. 이렇게 무응답이 많은 것은 질문 성격상 개인의 성실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엄격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3 지정도서 활용이 수강 만족도에 미친 영향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보다 수강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3)의 검증을 위해서 두 집단의 응답지 〈부록 2의 9~15 항목〉을 분석한 결과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M=24.32$, $SD=6.04$)과 통제집단($M=19.29$, $SD=5.46$)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8)=6.61$, $P<.01$).

〈표 1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수강 만족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집 Grp	단	사 례 N	평 균 M	표 준 편 차 SD
실 통	현 제 집 단	119	24.32	6.04
동 제 집 단		111	19.29	5.46
합	계	230	21.89	6.28

따라서 가설(3)에서 언급했던대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한 경우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을 실시한 경우에 비하여 수강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과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이 전공에 따라서 미치는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를 4개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실험집단 2개학과 및 통제집단 2개학과의 수강 만족도에 대한 변량분석

변 산 원 Source	자 유 도 DF	자 승 화 SS	평 균 자 승 화 MS	F F 값	유 의 도 수 준 P
집 단 간	3	1,615.56	538.52	16.41	.00
집 단 내	226	7,414.72	32.81		
합 계	229	9,030.28			

변량분석 결과 주효과가 나타났으므로 ($F(3, 226) = 16.41, P < .01$), 세페의 사후검증 절차에 의해서 전공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외교학과의 실험집단 ($M=26.15, SD=5.58$)과 통제집단 ($M=19.55, SD=6.09$), 그리고 영어영문학과의 실험집단 ($M=23.59, SD=6.09$)과 통제집단 ($M=19.19, SD=5.23$)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따라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에 전공과 상관없이 수강 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가설(3)은 확인되었다.

〈표 18〉 실험집단 2개학과 및 통제집단 2개학과의 수강 만족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집 Grp		사 례 N	평 균 M	표 준 편 차 SD
실 험	정 치 외 교 학 과	34	26.15	5.58
집 단	영 어 영 문 학 과	85	23.59	6.09
통 제	정 치 외 교 학 과	31	19.55	6.09
집 단	영 어 영 문 학 과	80	19.19	5.23
합 계		230	21.89	6.28

그리고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비교정치론」 수강생과 「영문학사」 수강생간에 수강 만족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별도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9〉와 같다.

〈19〉 표실험집단 2개학과의 수강 만족도에 대한 변량분석

변 산 원 Source	자 유 도 DF	자 승 화 SS	평 균 자 승 화 MS	F F 값	유 의 도 수 준 P
집 단 간	1	159.0126	159.01	4.50	.036
집 단 내	117	4,138.8529	35.37		
합 계	118	4,297.8655			

변량분석 결과 주효과가 나타났으므로 ($F(1, 117)=4.50, P<.05$), 셰페의 사후검증 절차에 의해서 전공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표 18〉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비교정치론」 수강생 ($M=26.15, SD=5.58$)과 「영문학사」 수강생 ($M=23.59, SD=6.09$)간에 .05 유의도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험집단간에서도 정치외교학과 수강생들이 영어영문학과 수강생들보다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에 더 만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4. 4 종합적 논의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업성취에 미친 영향

실험집단의 성적이 평균 64.26 점으로 통제집단의 평균 53.83 점에 비해 10.43 점이 높았다. 이러한 성적 차이는 대학의 등간평가 방법에 따르면 1등급 정도가 높아진 것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시험범위, 문제출제, 실시를 동일하게 하였고, 상대평가에 의하지 않고 절대평가에 의했으며 두 집단간의 평가기준을 수업계획서에 명시된대로 적용하였는데 그 결과 지정도서 이용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앞서 안창일, 이용선, 박재윤의 연구에서도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한 경우에 학과별로 차이는 있지만 1등급 정도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이시카와의 연구에서는 이 교수방법을 실시한 교수의 75%가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곧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똑같이 수업계획서를 배부하고,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성적을 종합성적에 20% 반영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학습열의에 대한 자극을 동일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성적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통제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도서관의 지정도서실을 통해 자료를 손쉽게, 어느 때나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업준비 및 과제보고서 작성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성적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공에 따른 학과별 차이 검증의 결과에 있어서도 정치외교학과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그리고 영어영문학과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은 사회과학 교과목이나 인문과학 교과목의 학습에 있어서는 학습도구가 여전히 책 중심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많이 이용시키거나 이용할 때 학습의 효과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본다. 곧 학생이 어떤 교과목을 학습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학업성취의 수준과 같은 그가 얼마나 많이 학습했느냐는 학습량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학습량은 학생이 학습하기 위해 투입하는 시간과 그 시간에 비례한 학습밀도가 또한 중요한 것이다.¹⁷⁾ 이러한 사실의 중요성은 질문지의

17) 黃頤奎, “大學에서의 教授—學習過程의 論理와 問題,” 大學의 教授—學習改善에 관한 세미나, 서울 :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8. pp. 14~15.

응답 헤이터가 입증해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자주적인 과제학습을 통해 그 시간들의 학습밀도를 높임으로써 학생의 학습량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라는 점에서 볼 때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은 학습량과 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종래의 강의방법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2) 도서관이용 및 학습활동에 미친 영향

첫째,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도서관 및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2개학과의 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에 전공과 상관없이 모두 도서관 및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안창일, 이용선, 박재윤의 연구와 이시카와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에서는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 교수방법에서와는 달리 도서관의 지정도서 제도를 통해 학습과제와 지정도서 읽기를 차질없이 연결시킴으로써 교과서 이외의 지정도서 및 기타 학습자료를 더 많이 읽게 된다는 사실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도서관자료 검색에 있어서 더 익숙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2개학과의 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가 교과목의 수업 계획을 설명 또는 소개할 때 도서관자료 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과 목록사용법에 대한 담당사서의 친절한 지도, 지정도서에 소개된 문현을 보통적으로 읽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충실한 학습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더 읽어야 할 필요성 등이 도서관목록 이용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앞서 김재철의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종래의 교수방법에서는 교수(instructor) 중심, 교과서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은 지정도서를 한낱 추천 도서 정도로 인식하지마는 실제로 도서관의 지정도서 제도를 활용한 교수방

법에서는 학생중심, 과제학습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자 자신의 주도하에 자료를 다각적으로 찾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자료를 검색하여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의 자료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찾아본 순서가 ① 도서관목록 조사 ② 사서에게 문의 ③ 서가에서 바로 찾아본 것으로 다같이 같았으나, 두 집단간의 이용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곧 이러한 차이는 학습준비를 위해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능동적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도서관의 자료 접근방식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차이가 난 것은 실험집단이 도서관의 지정도서 봉사를 받을 수 있었음에 비해 통제집단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도서관목록을 통한 간접적인 자료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실험집단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결국 도서관의 적극적인 봉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학습에 자극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자료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고, 찾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목록의 이용경향에 있어서는 빈도조사 결과, 두 집단이 다같이 저자, 서명, 주제 기입순으로 찾아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이유는 이용자들에 대한 도서관목록 이용교육의 정도 및 교수에게서 지정받은 도서를 찾아내기 위한 알고 있는 항목タ입이 반영되었을 가능성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학습자료에 대한 정보 획득에 있어서 누가 쓴 책, 무슨 이름의 책이라는 식의 지정도서를 찾는 학습태도에 익숙해진 탓일 수도 있으며, 또한 지정도서 읽기가 단지 필독도서 읽기로만 이해되고 있는데도 기인한 것일 것이다. 오늘날 연구방법이나 자료에 따라서는 겸색 효과면에서 저자, 서명, 주제 기입에 대한 이용 순위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수는 지정도서 읽기를 단지 필독도서 읽기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관련자료를 참고하도록 배려하고, 과제 자체를 위한 단순 학습과제가 아니라 관련 주제의 폭넓은 이해의 바탕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학습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스스로 찾아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경향에서 두 집단간에 이용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저자기입과 서명기입으로 이용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주제기입을 이용하는 정도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이용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하였을 경우 학생들이 수업과 학습과제 해결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지정도서 외의 관련정보를 더 많이 찾아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저자기입이나 서명기입으로 찾게 되는 정보는 한정적인데 비해 주제기입에서 찾는 경우는 관련정보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서 주제접근을 시도하는 방법으로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과제학습 및 보고서 작성을 더 충실히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것은 자료이용 및 학습수행 태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학습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실험집단은 평균 5~6권의 지정도서를 읽은 반면 통제집단은 평균 2~3권을 읽었으며, 지정도서 외에 더 필요하여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실험집단이 평균 1권인데 비해 통제집단은 평균 0.5권 정도이었다. 또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실험집단은 지정도서실 및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 반면 통제집단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학습수행 태도면에 있어서 스스로 학습을 하지 않고 급우에게 의지한 비율이 실험집단에 있어서는 5.7%인데 비해 통제집단은 16.2%나 되며, 또한 엄격한 자기판단을 할 수 있는 쳐지에서 응답을 꺼린 무응답이 실험집단에는 5명인데 비해 통제집단에는 15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차이가 있음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실험집단은 내용 그대로 베낀 경우가 19.1%이고 나머지가 탐구학습 태도를 취한데 비해 통제집단은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경우가 30.3%이고 나머지가 탐구학습 태도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2개 학과의 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

을 실시하는 경우에 전공과 상관없이 모두 과제수행에 있어서 더 충실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학습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도서관에 별도로 비치되어 있고, 다양한 열람, 대출방법에 의해 충분히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지원 여건이 과제 수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의 내포의 연구와 안창일, 이용선, 박재윤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교수가 수업진행과 도서관의 지정도서 읽기를 결부시킨 수업계획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을 경우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과 교과서 이외의 자료를 더 많이 읽게 되고, 따라서 강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아울러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결과를 어느 정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설(2)의 (가), (나)의 경우와 비교하여 가설(다)의 경우 자유도가 적은 이유에서도 미루어 유추할 수 있다. 즉 가설(다)의 경우 자유도가 적은 이유는 질문 성격상 무응답이 많을 수 있겠지만, 실험집단의 경우 무응답자의 수는 전체 199명 중 5명인데 비해 통제집단의 경우는 무응답자의 수가 전체 111명 중 49명이나 된다. 이러한 사실은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반응을 꺼렸다고 가정할 때 통제집단, 즉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의 경우 무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아,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적용한 경우에 더 자유적으로 과제를 수행한다는 결과를 보충적으로 지지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수강 만족도에 미친 영향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수강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2개 학과의 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에 전공과 상관없이 모두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학습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인해서 종래의 받는 수업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준비하고, 스스로 하는 학습에서 오

는 자신감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박창석의 연구¹⁸⁾에 의하면 종래의 교수방법에 의해 수업을 한 73 학년도의 수강생들과 실험대학의 취지를 살려 지정도서 제도를 활용하여 수업한 74 학년도의 수강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네가지 측면에서 조사한 바 73 학년도 수강생들의 반응은 ① 학생의 수업참여(3.07) ② 강의의 체계성(3.02) ③ 강사의 열성(2.99) ④ 도서관자료 이용(2.89) 순서로 나타났으나 74 학년도 2학기 수강생들의 반응은 ① 강사의 열성(3.73) ② 도서관자료 이용(3.49) ③ 학생의 수업참여(3.47) ④ 강의의 체계성(3.29) 순서로 밝혀졌다(반응값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 이러한 사실은 수업에 있어서 교수의 열의와 학습도구인 도서관자료의 이용이 수강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골든의 선행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동질의 집단이 아니어서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통계적 의미에서 가설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교수의 수업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평점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5점 만점에 학생들로부터 4점 혹은 5점의 높은 평점을 받은 교수들이 도서관의 지정도서 이용의 필요성 및 이용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오리엔테이션 실시와 수업프로그램과 지정도서 읽기를 활발히 연계시킨 분들이었다는 사실은 본 실험의 결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한 실험집단 2개 학과만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치외교학과 수강생들이 영어영문학과 수강생들에 비해 수강 만족도가 높았다(표 19 참조). 이 이유는 정치외교학과의 「비교정치론」 교과목의 수업진행이 영어영문학과의 「영문학사」 교과목의 수업진행에 비해, 질의와 토의식 방법을 보다 많이 실시함으로써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었고, 수업 중 구두보고와 토론을 통해서 학습과제를 바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또 과제학습 및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일제(一齊)과제 및 보고서 작성보다는 개인별 또는 그룹별의 과제나 보고서 작성을 요구한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정치론」

18) 朴昌錫, “教育內容 및 方法과 教授能力 擴充을 中心으로 한 實驗大學 運營에 關한 研究,” 高等敎育改革事業中 實驗大學研究報告書, 1974 學年度, 서울: 文敎部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敎育分科委員會, 1975. p.518.

교과목의 지정도서는 대개 논문 기사로서 짧고, 우리 말로 된 자료이어서 쉽게 대할 수 있었음에 비해 「영문학사」 교과목의 지정도서는 대개 영어로 된 자료로서 분량이 많고, 전공이긴 하지만 외국어에 대한 읽기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과제학습 및 보고서 작성 내용에 있어서도 천편일률적으로 베껴내는 과제가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조사연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데도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90명선의 대단위 학급 크기의 영어영문학과에 비해 정치외교학과는 30명선의 소규모 학급 크기로 인해 이러한 교수방법의 효과성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본 실험연구의 계획, 시행 및 자료분석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실험설계에 있어서 자연과학 계열 및 예체능 계열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표본으로 삼지 못한 점이다. 실험실습, 연습문제 풀기 및 퀴즈 테스트 등을 자주 실시하는 자연과학 계열 교과목이나 실기를 중시하는 예체능 계열 교과목의 수업 특성상 학습 성과의 변산(變敵)이 의외로 클 수 있고 차이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실험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근본적으로 자연과학 계열 및 예체능 계열 교과목의 수업도 이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강의와 과제학습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고, 도서관의 도서뿐만 아니라 매체자료를 활용하여 이론 및 실험실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아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시행에 있어서는 학급 규모의 작고 큰 것이 학급 분위기 및 도서관이용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를 고려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이용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전공의 다름이나 학급의 크기와의 상관없이 지정도서실 사서에게 자료이용에 대한 문의와 상담을 많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정도서실 사서는 수업프로그램을 우선 잘 이해하고 학습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앞서의 커크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의 성패는 수업진행에 있어서 사서가 담당교수의 파트너로서 얼마나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지

정도서 봉사의 활성화 정도가 수업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특히 개인별과제, 그룹별과제, 일제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학생들이 지정도서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의 데이터를 밝힐 수 없어 지정도서 활용의 피이드백을 가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 수업은 집단적인 상황 속에서 전개되지만 학습은 개인적인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배우고, 팀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개별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이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종래의 강의 위주의 교수방법에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실험연구 및 질문지에 의한 조사를 하였다.

이 연구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발견과 사실을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학업성적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전공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우수하다.
2. 도서관이용 및 학습활동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전공에 상관없이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도서관 및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고, 도서관 자료검색에 있어서도 더 익숙하며, 그리고 과제학습 및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스스로 더 충실히 한다.
3. 수강 만족도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전공에 상관없이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실시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강 만족도가 더 높으며, 소규모 학급크기에서 질의와 토의를 병행하는 세미나식 방법을 도입하고, 과제를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하도록 하고, 과제내용이 조사연구, 또는 해석 및 비판을 요구하는 경우 일수록 이 교수방법에 대해 만족도가 더 높다.

앞으로 도서관의 지정도서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전분야에 실시하여, 전공에 따른 효과의 차이 검증과 학습과제 양식에 따른 효과의 차이 검증 및 학급 규모의 크기에 따른 효과의 차이 검증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를 보완하고 이 분야의 지식체계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参考文獻>

1. 韓國語 文獻

- 姜信雄. “大學의 教育課程 및 教授方法 改善을 위한 研究.” 弘大論叢 14(1983) : 109 ~123.
- 高聖秀. “指定圖書制度에 關한 研究.” 圖書館學論集 4(1977) : 1~38.
- 김명옥.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지정도서 봉사에 관한 일 고찰.” 圖書館學會誌(延世大學校 圖書館學會) 4(1979) : 217~254.
- 金鳳杰. “實驗大學에 있어서 效果的인 學習指導方法.” 高等教育改革事業中 實驗大學研究報告書, 1978 學年度. 서울: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 1979.
- 金才哲. “指定圖書室 運營에 따른 圖書館利用 增大方案에 관한 調查研究.” 釜山女子專門大學論文集 3(1982) : 151~164.
- 金昌集 외 “大學教育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本 大學校의 實驗大學 實施를 위한豫備的研究(1).” 弘大論叢 7(1976) : 560~570.
- 盧禎植, 金正昭. “大學圖書館의 指定圖書制度에 關한 研究.” 大邱敎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9(1973) : 189~202.
-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 高等教育改革事業中 實驗大學研究報告書, 1973 學年度~1980 學年度, 8 권. 서울: 文教部, 1974~1981.
- 문우순. 컴퓨터 모의실험에 의한 지정도서실의 적정좌석수와 복본수에 관한 연구(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8.
- 朴商浩, 任善彬, 陸榮美. “大學入學 學力考査 成績과 大學成績과의 相關性 研究.” 教育研究(聖信女子大學校) 18(1985) : 24~39.
- 朴玩熙. “大學入學成績과 大學成績間의 關係에 대한 縱斷的 研究.” 釜山產業大學校論文集(人文科學篇) 8 : 1(1987) : 335~351.

- 朴昌錫. “教育內容 및 方法과 교수능력 擴充을 中心으로 한 實驗大學 運營에 關한 研究.” 高等教育改革事業中 實驗大學研究報告書, 1974 學年度. 서울: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 1975. pp. 513~544.
- 朴鍾暉. “大學生集團의 學業成就度 豐言을 위한 豐備調查研究: 授業改善의 觀點을 中心으로.” 教育發展 2(1982) : 1~14.
- 卞榮啓. 授業設計, 改訂增補版. 서울: 培英社, 1980.
- 孫直銖. “韓國大學教育改革의 課題.” 人文科學(成均館大學校) 12(1983) : 163~187.
- 宋在萬 외. “課題學習의 效率의in 指導方案에 關한 調查研究.” 高等教育改革事業中 實驗大學研究報告書, 1978 學年度. 서울: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 1979. pp. 1183~1209.
- 安昌一, 李容善, 朴在允. “效果의in 教授 및 評價方法에 關한 研究.” 高等教育改革事業中 實驗大學研究報告書, 1978 學年度. 서울: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 1979. pp. 183~205.
- 李星鎬. “教授의 本質的 意味와 教授戰略.” 大學教育 9(1984) : 11~19.
- 李章煥 외. “大學에 있어서의 教授方法 改善에 關한 研究.” 高等教育改革事業中 實驗大學研究報告書, 1980 學年度. 서울: 文教部 大學運營綜合評價委員會, 1981. pp. 385~409.
- 李廷彬. “實驗大學 運營評價와 教授方法의 改善.” 高等教育改革事業中 實驗大學研究報告書, 1976 學年度. 서울: 文教部 大學運營綜合評價委員會, 1977.
- 崔達鉉, 孫正彪, 高聖秀. “實驗大學 課題圖書室 運營에 關한 調查研究.” 圖書館學論集 5(1978) : 119~168.
- 崔寧贊. “課題圖書室의 效率의in 運營方案.” 高等教育改革事業中 實驗大學研究報告書, 1978 學年度. 서울: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 1979. pp. 45~69.
- 韓國大學教育協議會, 大學의 教授—學習 改善에 關한 세미나. 서울: 同協議會, 1988.
- 洪根一 외. “受講人員數에 따른 講義方法 開發研究.” 高等教育改革事業中 實驗大學研究報告書, 1978 學年度, 서울: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 1979. pp. 559~588.
- 洪香姬. 大學圖書館 指定圖書制度에 關한 研究(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75.

2. 日本語 文獻

- 圖書館問題研究會 編. 圖書館用語辭典. 東京: 角川書店, 1982.
- 山下信. “指定圖書制度実施後の問題點: 國立大學圖書館における豫算措置後の實態を中心にして.” 圖書館界 23 : 5(1972, 1) : 193~196.
- 石川清治. “學生の圖書館利用學習: 教授形態との關連において.” 圖書館界 17 : 2(1965, 8) : 34~45.

野田正一. “岡山大學における指定圖書制度.” *圖書館界* 23 : 5(1972, 1) : 186~193.

日本圖書館協會 編. *圖書館ハンドブック*, 第4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77.

田澤恭二. “東京學藝大學圖書館の指定圖書制度について.” *圖書館雜誌* 64 : 5(1970, 5) : 200~202.

3. 英語 文獻

- Baumler, J.U. and Baumler, J.L. “A Simulation of Reserve Book Activities in a College Library Using GPSS/360.”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36 : 3(May 1975) : 222~224.
- Becker, Dale Eugene. *Social Studies Achievement of Pupils in Schools With Libraries and Schools Without Libraries*. Unpublished Ed. 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70.
- Bruner, J.S.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 Carmack, Bob and Loeber, Trudi. “The Library Reserve System-Another Look.”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32 : 2(March 1971) : 105~109.
- Catter, Allam M. “University Teaching and Excellence,” in *Improving College Teaching* ed. by Calvin B.T. Lee.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67.
- Clark, Alice S. *Managing Curriculum Materials in the Academic Library*.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82.
- Crittenden, Kathleen S., Norr, James L. and Lebailly, Robert K. “Size of University Classes and Student Evaluations of Teaching.” *Journal of Higher Education* 46 : 4(July-August 1975) : 461~470.
- Dehart, Florence E. *Library-College Concept*. Emporia: Kansas State Teachers College, 1974.
- Dougherty, Richard M. & Blomquist, Laura L. *Improving Access to Library Resources*.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74.
- Dressel, Paul L. and Marcus, Dora. *On Teaching and Learning in College*.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ub., 1982.
- Gagné, Robert M. *The Conditions of Learning*, 3r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7.
- Gagné, Robert M. and Briggs, Leslie J. *Principles of Instructional Desig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74.
- Glaser, Robert. “Psychology and Instructional Technology,” in *Training Research and Educ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2.

- Golden, Bruce Gregory.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ected Community College Instructors' Utilization of Learning Resources Materials and Student Ratings of Teaching Effectivenes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he Graduate Library School of Indiana University, 1980.
- Harrod's Library Glossary of Terms Used in Librarianship, Documentation and the Book Crafts and Reference Book*, 6th ed. compiled by Ray Prytherch. Hants: Gower, 1987.
- Helm, Margie M. "Duplicate Copies of Collateral Reference for College Libraries." *Library Quarterly* 4 : 3(July 1934) : 420~435.
- Henderson, Algo D. and Henderson, Jean G. "Effective College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in America*.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ub., 1974. pp. 126~141.
- Higham, Norman. *The Library in the University: Observations on a Service*. Brookfield: Gower Pub. Ltd. Co., 1980.
- Joyce, Bruce R. and Weil, Marsha. *Models of Teaching*,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0.
- Kaysen, Carl. *The Higher Learning, The Universities, and the Public*.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Kirk, Thomas. "Course-Related Library Instruction in the 70's," in *Library Instruction in the Seventies: State of the Art* ed. by Hannelore B. Rader. Ann Arbor, Mich.: Pierian Press, 1977.
- Knapp, Patricia B. *The Montieth College Library Experiment*.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66.
- Lyle, Guy R. *The Administration of College Library*, 4th ed. New York: The H.W. Wilson Co., 1974.
- McElroy, A. Rennie, ed. *College Librarianship: The Objectives and the Practice*. London: The Library Association, 1984.
- Merrill, M.D. *Instructional Desig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1.
- Neal, K.W. *British University Libraries*. Cheshire: Printing & Graphic Services, 1971.
- Nelson, T.M. and Laden, C.T. "Instructor Judgements of Classroom Assignments in Teaching Psychology." *Higher Education* 7 : 1(February 1978) : 83~86.
- Penland, Patrick R. *The Library as a Learning Service Center*. New York: Marcel Dekker, Inc., 1978.
- Piper, David W. "What Makes Teaching Effective?" in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Leicester: Cavendish Press Ltd., 1978.

Rogers, Rutherford D. and Weber, David C.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New York: The H.W. Wilson Co., 1971.

Wilson, Louis Round and Tauber, Maurice F. *The University Library*,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

Wittrock, Merlin C., ed. *Learning and Instruction.* Berkeley: McCutchan Publishing Co., 1977.

〈부록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업성적

실험집단 (정치외교학과)	통제집단 (정치외교학과)	실험집단 (영어영문학과)	통제집단 (영어영문학과)
피험자 번호 점수	피험자 번호 점수	피험자 번호 점수	피험자 번호 점수
01 85	01 51	01 71	01 61
02 75	02 63	02 72	02 61
03 59	03 77	03 65	03 44
04 88	04 59	04 63	04 40
05 75	05 63	05 75	05 58
06 62	06 65	06 65	06 48
07 35	07 40	07 64	07 58
08 75	08 63	08 42	08 54
09 72	09 54	09 82	09 54
10 56	10 48	10 56	10 48
11 76	11 69	11 47	11 44
12 64	12 52	12 52	12 60
13 68	13 57	13 81	13 32
14 73	14 70	14 70	14 54
15 55	15 58	15 81	15 54
16 75	16 62	16 61	16 42
17 80	17 79	17 63	17 74
18 83	18 57	18 52	18 63
19 74	19 61	19 57	19 47
20 71	20 59	20 53	20 54
21 64	21 57	21 46	21 40
22 75	22 27	22 65	22 50
23 75	23 59	23 46	23 52
24 74	24 51	24 54	24 42

실험집단 (정치외교학과)	통제집단 (정치외교학과)	실험집단 (영어영문학과)	통제집단 (영어영문학과)
피험자 번호 점수	피험자 번호 점수	피험자 번호 점수	피험자 번호 점수
25	69	25	54
26	85	26	79
27	73	27	83
28	63	28	69
29	75	29	71
30	63	30	51
31	83	31	47
32	68	32	57
33	72	33	44
34	73	34	62
		35	62
		36	43
		37	48
		38	87
		39	32
		40	64
		41	49
		42	77
		43	79
		44	69
		45	60
		46	32
		47	74
		48	64
		49	74
		50	44
		51	39
		52	50
		53	64
		54	48
		55	52
		56	65
		57	60
		58	70
		59	66
			59
			51

설 험 집 단 (정 치 외 교 학 과)	통 제 집 단 (정 치 외 교 학 과)	설 험 집 단 (영 어 영 문 학 과)	통 제 집 단 (영 어 영 문 학 과)
피 험 자 번 호 점 수	피 험 자 번 호 점 수	피 험 자 번 호 점 수	피 험 자 번 호 점 수
		60	96
		61	60
		62	64
		63	54
		64	60
		65	50
		66	74
		67	78
		68	74
		69	75
		70	57
		71	74
		72	56
		73	61
		74	80
		75	76
		76	42
		77	44
		78	60
		79	81
		80	48
		81	33
		82	53
		83	58
		84	60
		85	94
계 34 명	31 명	계 85 명	80 명

〈부록 2〉 도서관이용 및 학습활동과 수강 만족도에 관한 질문지

* 다음 문항을 읽고 응답에 알맞는 해당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1. 이 교과목의 학습 및 과제를 위해서 이번 학기에 도서관에서 몇 권의 지정도서를 이용하였습니까? (시청각자료를 이용한 경우는 몇 점의 자료를 이용하였습니까?)

전혀 읽지 않았다	1~2 권 (점)	3~4 권 (점)	5~6 권 (점)	7~8 권 (점)
1	2	3	4	5

2. 이 교과목의 학습 및 과제를 위해서 지정도서 외에 더 필요하여 도서관에서 대출하거나 이용한 도서는 몇 권이었습니까? (시청각자료를 이용한 경우는 몇 점이었습니까?)

전혀 읽지 않았다 (점)	1 권 (점)	2 권 (점)	3 권 (점)	4 권(점) 이상
1	2	3	4	5

3. 이 교과목의 학습 및 과제를 위해서 이번 학기에 도서관을 이용한 시간은 평균 1주일에 모두 몇 시간이나 되었습니까?

1 시간 이하 시간	1~2 시간	3~4 시간	5~6 시간	6 시간 이상
1	2	3	4	5

4. 이 교과목의 학습 및 과제를 포함하여 다른 교과목의 학습을 위해서 이번 학기에 도서관을 이용한 시간은 평균 1주일에 모두 몇 시간이나 되었습니까?

1 시간 이하 시간	1~5 시간	6~10 시간	11~15 시간	16 시간 이상
1	2	3	4	5

5.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찾아 보았습니까?
아래 방법 중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않았다	별로 않았다	그저 그렇다	가끔 했다	자주 했다
-----------	-----------	-----------	----------	----------

- 1) 도서관목록을 조사했다. 1 2 3 4 5
- 2) 사서에게 직접 문의했다. 1 2 3 4 5
- 3) 직접 서가에 접근하여 찾았다. 1 2 3 4 5
- 4) 기타(있으면 자세하게)

6. 도서관의 열람용 목록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를 찾을 때 어느 사항으로 찾았습니까?

아래 제시된 사항 중 해당된 것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보지 않았 다	찾아 야 않았 다	별로 보지 않았다	어떻다 고 말할 수 없다	가끔 찾 아 았다	자주 찾 아 았다
---------------------	--------------------	-----------------	---------------------	-----------------	-----------------

- 1) 저자기입 1 2 3 4 5
- 2) 서명기입 1 2 3 4 5
- 3) 주제기입 1 2 3 4 5

7. 이 교과목의 과제학습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래 방법 중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물론 그렇다
-----------------	-----------------	-----------	-----------	-----------

- 1) 지정도서를 읽었다 1 2 3 4 5
- 2) 도서관의 (기타)자료를 읽었다. 1 2 3 4 5
- 3) 급우의 자료를 빌리거나 보고서 초고를 참고하였다 5 4 3 2 1
- 4) 기타

8. 이 교과목의 과제학습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지정도서 및 도서관자료를 어떻게 이용하였습니까? 아래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1) 그대로 내용을 베꼈다. 5 4 3 2 1

2) 자료 내용을 참고 혹은 인용하였다. 1 2 3 4 5

3) 과제와 연관시켜 내용을 파악했다. 1 2 3 4 5

4) 과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했다. 1 2 3 4 5

5) 기타(있으면 자세하게)

9. 이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지정도서 읽기가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 별로 그 그저 그 다소 그 정말 그
렇지 않 렇지 않 렇다 렇다 렇다

1 2 3 4 5

10. 이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지정도서를 이용한 과제학습 및 보고서 작성이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1. 이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지정도서 읽기가 학업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2. 이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지정도서 읽기가 실제 학습내용 및 과제수행에 있어서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3. 이 교과목의 학습을 위해서 부과된 과제량은 적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4. 이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학습 및 지정도서 읽기에 대한 도서관의 봉사는 만족할만 하였습니까?

1 2 3 4 5

15. 이 교과목의 수업에 있어서 이번 학기에 실시한 교수방법은 수강에 있어서 만족할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학과 수강과목명 :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structors' Utilization of the Reserve Collection in the University Library

Young Yo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instructors' utilization of the reserve collection in the university library. To accomplish this, an experiment-and-questionnaire study was done by selecting an experimental group for whom the teaching method utilizing the reserve collection was used and a control group for whom the method was not used.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studied were as follows:

- (1) Students take the 'Comparative Politics' course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2) Students take the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course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data to test the hypothesis were analyzed by SPSS/PC⁺ routine.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academic achievement($T(228)=6.69$, $P<.01$).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effect by major, the one-way analysis of variance was employ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 Professor, Myong Ji University.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herefore, students for whom the teaching method utilizing the reserve collection was used have higher academic achievement than those for whom the method was not used.

(2) As for the degree of utilizing the library and its material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T(228)=8.87$, $P<.01$). As for the results of the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effect by majo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both departments.

As for the degree of utilizing library catalogues and bibliographical tool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T(228)=8.55$, $P<.01$). As stated earlier, the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effect by major has shown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both departments.

As for the degree of sincerity in doing homework and writing pape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T(176)=8.03$, $P<.01$).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effect by major, the one-way analysis of variance was again employ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ere again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both departments. So, the students for whom the teaching method utilizing the reserve collection was employed used library catalogues and bibliographical tools much more than those for whom the method was not employed, and were more sincere in doing homework and writing papers.

(3)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degree of satisfaction in taking the course ($T(228)=6.61$, $P<.01$). The results of the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effect by major was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both departments. Therefore,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students who were taught by the teaching method utilizing the reserve collection is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were not taught by the method.

On the other hand, the responses of the experimental groups of two departments as to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ir teaching method was investigated. The result shows that students who took the 'Comparative Politics' course in a small class which employed the seminar method were higher in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teaching method than students who took the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course in a large class which employed a lecture-oriented teaching method.

(접수일자 '90.5.31)